

새 계명

작성일 : 2012년 1월 30일 새벽 1시 3분

작성자 : 장정희

[다리굴기도굴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셔서 긴장하며 갔습니다. 기도굴에 도착하여 찬양하다 천정에 추위를 피해 들어온 듯 검은 벌레 수십 마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끔찍했고 이것들을 불로 태워야 하나 했을 때 예수님께서 “끔찍한 것을 보여 주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것이나고 여쭈었을 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내가 너에게 끔찍한 일을 보리라 말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29절을 말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일어나니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할 뻔하였느냐.?

이와 같이 요한복음 12장 48절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 예수가 선생 통해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세상과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선생에게 미리 전한 나의 말씀을 통하여 선생이 내가 보낸 사명자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생의 말이

이뤄지나 안 이뤄지나 보기 전에

믿음으로 이뤄질 줄 생각하고

선생의 말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실천하여라.

선생의 말은 요한복음 12장 49절처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의 말이 아니요

그를 보낸 나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는 요한복음 12장 50절처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의 말이 너희 영을 구원받게 하도록

하나님과 나 예수가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삼위가 전한 그대로 말씀하는 선생 통해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이니

지금 섭리사는 요한복음 13장과 14장처럼

나 예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땀으로

나와 한 몸이 되는

성찬식을 마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성찬식의 핵은 이것이니

요한복음 13장 8절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의 십자가 대속으로 너희 죄를 깨끗케 아니하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 시대 선생의 십자가 대속으로

너희 영을 구원하게 되었으므로

선생과 너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고로 나 예수의 육이 그 시대 제자들이었던 것처럼

선생의 육은 너희들이다.

그리하여 성찬식을 통해

나와 제자들이 한 몸이 되었듯

선생과 너희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성찬식의 핵이다.

나 예수와 선생이 너희와 한 몸이 되도록 대속한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이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
화목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 십자가를 저주어라.
형제의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이고
나 예수와 선생의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서로 나눠지고 갈 때
나 예수와 선생의 십자가 짐이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지금 섭리사는 이와 같이 행할 때이니
그래야 선생의 욕이 너희 앞에
곧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 끔찍하고 끔찍한 것은 이것이니
나를 판 가룟 유다이니라.
이 시대 가룟 유다는
선생과 섭리사를 악평하는 그들이니
너희는 절대 그들의 말은 보지도 듣지도 말고
너희 눈과 귀와 입을 닫고 기도하라.
내가 봤던 다리굴기도굴 천정에 붙어 있던 벌레들처럼
그들이 선생에게 달라붙어
선생을 악평하고 헐뜯으며
선생을 쓰러뜨리려 하고 있으니
선생의 말이 그들을 심판하여 소멸할 것이니
그들의 끔찍한 행악이 심판의 불로 소각되리라.
또한 섭리 안에서도
벌레와 같이 행악을 일삼는 자
그의 행위대로 심판 당하니
너희는 섭리사를 살리고 선생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멸함만 보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회개하여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십자가를 같이 짊으로
섭리사에 단 한 명도 실족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이 나 예수의 마음이고 선생의 마음이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용서는 사랑이니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화평을 이루어라.
화평은 나 예수이고 선생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섭리사가 나 예수가 역사하는
진정한 사랑의 세계임을 깨닫고
생명의 대역사가 일어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라.>

이처럼 나 예수의 길만이
너와 섭리사의 차원을
천국 차원으로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그래야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
라.>

선생 안에 거한 나 예수와
나 예수에게 거한 선생을 너희가 보게 되어
선생의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깨닫고
너희도 너희 안에 선생이
선생 안에 너희가 거하게 될 것이니
이를 못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1절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선생이 이웃과 형제와 원수를 사랑한 행함을 보고
나와 일체 되었음을 믿으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3절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니
지키는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한다는 말은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말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처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선생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낸 나 예수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
니
그런 그가 어찌 천국으로 갈 수 있겠느냐.
고로 너희는 나 예수와 선생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회개하여
너희 영 혼 육 마음을 나와 선생과 일체시키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형제의 십자가를 밭으로 이 땅에 선생의 육이 되어
나 예수의 영 휴거를 맞이하여라.

네가 끔찍하게 봤던 벌레는
악평자와 섭리사 형제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행악도
상징하니 선생의 말로 심판당하기 전에
선생과 나 예수를 사랑함으로 화평하라는
내 말을 지키어라.
이것이 형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라.
또한 너희끼리도 악한 말로 서로의 심령을 죽이니
너희는 말로써도 행위로써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이 새 계명이니라.
너희를 사랑하여 나 예수가 일렀다.